



심미 치과술(미용치과술)

이철우

(울지병원 치과병원장·박사)

치아는 저작하고 발음하는 기능 외에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심미적인 기능이 있다. 즉 치아가 전체 얼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치과 영역에는 이러한 치아의 심미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반 환자들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은 것 같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치과 술식을 “심미 치과술” 또는 “미용 치과술”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최근 치과에서 활발히 시술되고 있는 심미치과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겠다.

1. 치아 미백술: 누런 치아, 약물, 커피, 니코틴에 의해 변색된 치아 등을 하얗게 해주는 술식을 말한다. 보통 치과에서 마우스(약품을 넣을 수 있는 틀)를 제작해서 마우스 내에 치아 미백제를 넣어 환자에게 장착하게 하는 것

으로 변색된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고, 보통 2~4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

초기에 치아가 시린듯한 느낌이 있으며, 과도한 경우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치아 성형술: 치아의 모양이나 형태가 비정상적일 때, 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아의 모양을 이상적인 형태로 바꾸어 주는 술식으로 마취 없이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

3. 심미재료를 사용한 미용술: 라미네이트, 레진, 포셀린 등의 자연치아의 색과 가장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심미재료를 이용해서 치아의 색, 모양, 형태 등을 이상적인 형태로 바꾸어 주는 술식을 말한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4. 잇몸성형술: 갈색이나 검은

색의 잇몸을 멜라닌 색소제거술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분홍색 잇몸으로 바꾸어 준다.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 간단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미소에 관여하는 특정 근육을 절제하거나 윗턱수술, 치아교정 등을 시행하여 준다.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내려앉아 뿌리가 노출된 경우는 잇몸 이식이나, 조직유도재생술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잇몸으로 회복시켜 준다. 특히 과거에 전치부 도관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심미적 개선을 요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

5. 치열교정 및 악교정 수술에 의한 안모개선: 이것은 치아의 위치 이상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치열을 만들어 주고, 윗턱과 아래턱의 심한 부조화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특히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도 치열교정에 의해 돌출된 입술에 극적인 개선을 줄 수 있다.

요즘에는 치아색깔의 심미적 교정장치를 사용하거나 치아의 양쪽 설측부에 장치를 붙여 외관상으로 전혀 노출이 없는 방법도 있다.

6. 임플란트(인공치아), 골이식, 골재생수술: 앞니는 발치 후 시간이 경과하면 치아의 뿌리가 위치하고 있던 자리에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 윗입술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골이식이나 골재생수술 및 임플란트(인공치아)를 해줌으로써 꺼진 입술

을 정상 회복시켜 주어 정상적인 안모를 형성해 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치과 치료를 통해 얼굴 전체의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술식들은 대단히 많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술식들은 국소마취 하에 통증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배려가 얼굴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고, 개선된 인상으로 대인관계 및 인생에 자신

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심미치과술에 관한 더 많은 재료와 술식들이 개발될 전망이고, 최근 환자들로부터 심미치과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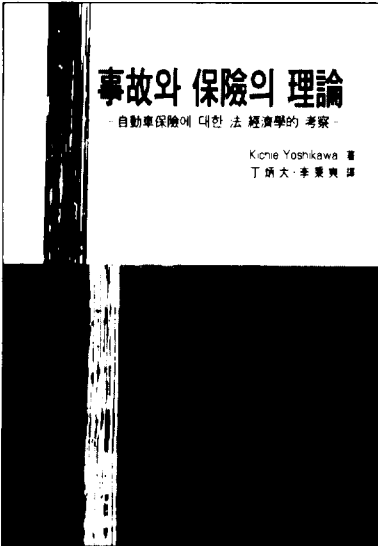
〈문의처〉

을지병원 치과진료부

☎ 970-8334, 8634

을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

☎ 275-1632



우리 나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넘는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 사고의 예방, 피해자의 구제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사고와 보험의 이론”이라는 일본인 요시가와 저서를 경남대학 정병대·이병석 교수의 공동 번역으로 출간된 이 책은 보험학적 시각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 특정 보험제도의 계량적 성과와 효율성의 분석과 같은 좁은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자동차 사고의 억제, 피해자 보상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포괄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현행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기초가 되는 과실책임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하고, 과실책임주의 보다는 엄격책임을 기초로 한 무과실보험의 형태가 피해지구제와 사고의 억제라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법경제학적 이론을 들어 명백히 해주고 있는 등 보험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편집실〉